

출판계불황, '책 안읽는' 독자 탓인가

서점과 출판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2, 30%의 매상이 줄어 부진했던 지난해 경영의 고충을 여러 매체를 통해 거듭 호소해왔다. 이것을 보면 출판계의 불황이 전적으로 독자들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리지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물론 독자의 잘못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책이 읽히지 않는 것이 독자들의 외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독서량 저하와 독서분위기의 퇴조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유수의 세계적인 출판사들도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독자들이 매스미디어에 시간을 뺏기고 현대생활의 주기에 따라 책과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외

국의 경우와 우리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양상은 전혀 다르다.

결과가 동일하다고 손을 놓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지난해 최대의 불황을 겪은 출판계는 책의 해를 맞아 잔치집처럼 들떠 있지만, 그럴 입장도 아니다. 내년엔 CA TV방송이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면 책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대학입시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층의 진정한 독서는 더 멀찌감치 물러설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은 가장 책이 읽히지 않는 독서의 계절인 가을과 연말이면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독서율도,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독서율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적어도 1만명 이상의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서량을 외국과 제대로 비교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 출판인은 우리의 독서량이 외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외국의 독서율 집계는 잡지와 만화 같은 출판물을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는 단행본만을 통계자료로 삼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출판계는 불황의 탓을 무조건 불특정다수인 독자에게만 돌린다.

출판계의 불황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책의 해 행사를 치르는데 여념이 없을 출판계의 93년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 최태원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케네스 C. 데이비스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미국의 역사」(진병호 옮김, 고려원미디어)는 제도교육의 도구인 교과서의 행간을 읽게 하는 책.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서부터 이란 콘트라사건에 이르는 미국역사의 궁극적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를 중심으로 파헤친다.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어 부분 발췌 독서가 가능한 이 책에는, 링컨은 진정 위대한 노예해방자였다, JFK는 누가 죽었나,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뉴욕 타임스」의 펜타곤 문서 보도를 왜 저지하였나 하는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실려 있다. 특히 가운데에는 미국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권의 책에 관한 해설이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 「상식」(Common Sence)은 어떤 책인가?

1776년 1월에 애국투사 그룹에 속한 어느 인쇄인의 공장에서 「상식」이란 표제가 붙은 익명의 소책자가 나왔다. 그 저자는 토머스 페인이란 사람이었는데, 그는 멜로드라마 조의 산문으로 된 그 글에서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간결하고 감명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체로 설명해 나갔다. 세습군주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로 격하시키고, 영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의견들을 논박하고, 독립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논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메리카 해군

창설에 관한 비용분석까지 곁한 것이 그 책자의 내용이었다.

토머스 페인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일자리를 구하였다. 식민지에 온 지 불과 몇달만에 그는 프랭클린의 권유에 따라서 영국에 대한 투쟁에 관한 활판인쇄를 맡았다.

그의 글 「상식」의 영향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의회의원들은 모두 페인의 논설을 숙독하였고 조지 워싱턴도 그 글을 읽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병사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중요한 것은 그 글이 식민지방방곡에서 누구나 다 읽는 필독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책자는 순식간에 15만부가 팔리고 다시 중판을 거듭한 끝에 그 판매부수는 50만부에 이르렀다. (그 당시의 아메리카 인구수를 노예까지 포함하여 3백만으로 잡을 때 그 판매부수는 오늘날 3,500만부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그렇게 하여 처음으로 독립문제가 대중적 공론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 「툼 아저씨의 오두막」이 당대의 문제작이 된 이유는?

헤리엇 비처 스톤의 소설 「툼 아저씨의 오두막」은 분명히 미국문학

의 걸작은 아니다. 베스트셀러 수준의 미국소설이 되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장 뜻있는 소설로 남아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 소설의 정식제목은 「Uncle Tom's Cabin, or Life Among the Lowly」로서 처음에 「National Era」라는 노예제 폐지주의 신문에 연재된 것을 1852년에 보스턴의 한 출판사에서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등장인물들은 거의 모두, 아주 잔혹한 사람들의 눈에서까지 눈물을 짜내려는 계산아래 회화적으로 설정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 책에는 잊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과 삶의 장면들이 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엘리자가 아기를 품안에 감싸 안고 맨발로 물위에 떠있는 얼음조각을 발판으로 건너 뛰면서, 노예중개상을 피하여 얼음으로 덮인 오하이오 강을 건너는 장면일 것이다. 눈물겨운 죽음의 현장에서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선함을 끌어내려고 애쓰던 순진하고 귀여운 예바가 있고, 포악한 농장주 시몬 레그리... 그는 톼의 굳은 의지와 정신을 깨부수려고 갖은 악을 다 쓰지만 허사가 되고, 강철과 같이 휘었다가도 튀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인다운 톼 아저씨, 이 소설의 예수와도 같은 중심인물인 그는 레

그리의 못매에도 굴하지 않고 다른 노예들을 감시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소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남부에서도 북부에서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일년만에 30만부가 팔렸다. 이어 유럽의 각국어로 번역판이 나와 총 판매부수는 순식간에 150만부에 달했으나, 페이퍼백도 없고 대형 도서판매망도 없던 19세기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그런 엄청난 판매부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중략)

남부에서는 분노의 폭력이 횡행하고 있었으나 그곳에서까지도 책은 팔려나갔다. 헤리엇 스톤은 천진난만하다느니 거짓말쟁이느니 하는 비난을 받았다. 한번은 그에게 반항적인 노예의 귀가 들어 있는 익명의 소포가 배달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책은 거짓말이라는 비난에 응대하여 스톤은 「툼 아저씨의 오두막집에 대한 해답」이란 책을 다시 써서 그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1862년에 링컨은 헤리엇 비처 스톤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그 당시의 신문보도는 전하고 있다. “당신이 소설로 그 큰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조그만 부인이구려.”

출판저널

통권 121호 / 1993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鏞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允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鍊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牧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宰彬 | 琴草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多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榮俊 |
| 金泰賢 | 金泰亨 | 林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龍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瑛薰 | 李元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靛 | 李重漢 |
| 李姬載 | 林曉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有圭 | 鄭曉映 | 鄭雲錫 | 鄭晉錫 |
| 鄭鏞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료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료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료 용지에 본사 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